

Minithyrotomy 방법을 이용한 성대 고유증 병변의 수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손영익·조현진·정만기

서 론 :

전경부에 1~2 cm의 절개선을 통하여 갑상연골에 4 mm 내외의 작은 구멍을 만든 후 이를 통하여 성대 고유증에 접근하는 술식이 1999년 Gray SD 등에 의하여 소개된 바 있다. 이는 성대 점막의 절개선 없이도 성대 고유증 병변의 치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방 법 :

초기 성문암으로 일측 성대의 레이저 절제술을 시행 받고 1년 이상 재발이 없는 환자 2명에서 현수후두경을 통한 경성 내시경 관찰 하에 minithyrotomy 접근법을 이용하여 성대 고유증에 자가 지방을 이식하였다. 또한 현수후두경으로 시야확보가 불가능하였던 라인케씨 부종 환자 1명에서 laryngeal mask airway를 통한 굴곡형 내시경 관찰 하에 동

일한 접근법으로 점막하 고유증의 부종을 제거하였다.

결 과 :

지방이식 환자 2명 모두에서 수술 직후부터 약 1.5개월 이상 음성이 호전된 상태로 유지되었으나 술 후 3개월째 이식된 지방이 흡수되면서 호전의 정도가 감소하였다. 라인케씨 부종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음성이 호전된 상태로 1개월 째 관찰 중이다. 수술과 관련된 특별한 합병증은 모든 예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결 론 :

Minithyrotomy 방법을 이용한 성대 고유증의 접근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고 성대 점막의 절개 없이도 성대 고유증의 치치나 시술이 가능한 유용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